

교류분석(TA)이론에 기초한 초기 청소년의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와 학교적응의 관계

김 미 례[†]

전남대학교

본 연구는 교류분석(TA)이론에 기반을 두고 초기 청소년의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중학교에 재학 중인 410명을 무선 표집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는 첫째, 각 변인에 대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상태, 스트로크, 학교적응 하위 요인들 간에 대체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변인들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자아상태의 경우 FC가 가장 높았고, 스트로크의 경우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 스트로크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학교적응의 경우 학교규범준수를 가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의 학교적응 간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타인이 나에게 주는 긍정적 스트로크는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가장 많이 높여주는 예측변인으로, 어른자아는 학업 및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를 가장 많이 증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학교규범준수를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함의와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들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초기 청소년기, 자아상태, 스트로크, 학교적응

[†] 교신저자 : 김미례,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Tel : 010-9633-7631, E-mail : mirkim2001@yahoo.co.kr

초기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부모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로서 심리적으로 혼란과 갈등을 가장 많이 직면한다. 특히 최근 이 시기 청소년들은 자신을 둘러싼 가족, 사회, 학교의 환경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 등의 다양한 심리 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우울, 불안, 위축, 분노,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인다(양명숙, 한영숙, 2007; 정옥분, 2004; 최혜숙, 이현림, 2003; Erikson, 1968). 이처럼 우리사회의 청소년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유발된 문제행동을 심리적 부적응 상태로 이해하기 보다는 그 원인을 깊이 있게 규명하고자 하는 학문적 관심이 증가되면서 긍정적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PYD)에 따른 적응차원의 연구가 부각되고 있다(Lopez & McKnight, 2002). 특히 청소년들은 하루 활동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라는 조직체의 구성원 간 적응 양상은 청소년기의 삶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무엇보다 Eric Berne의 교류분석(TA)은 한 개인이나 조직에 내재된 감정, 태도 및 행동 등의 자아상태 이해와 대인간 교류방식인 스트로크 증진을 통해 그 개인과 조직의 적응 및 성장과 변화를 조력하는데 효과적인 심리치료 이론으로 밝혀졌다(우재현, 2006). TA 학파는 적응이란 존재인지에 대한 긍정적 인정욕구인 격려, 칭찬, 애정, 사랑 등의 스트로크를 충분히 받고 자아상태간 균형이 유지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활성화 된 상태로 보았다. TA 상담과정의 핵심도 내담자의 지금-여기에서의 자아상태와 스트로크를 자각하게 하고, 재결단을 통해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부정적 각본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 설계와 자기계발을

도모하는 자율행동이 가능 하도록 하여 충분히 잘 적응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Jacques, 2005). 그러나 기존 적응 관련 연구들 대부분은 개인이 지금-여기에서 스스로 자각을 통해 변화시키기 어려운 차원인 성격, 가족, 애착, 생활양식, 양육태도 등과 관련한 탐색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의 원만한 적응이 특정 자아상태와 상호간 스트로크 교환으로 이루어지고(우재현, 1993; 이영호, 2006), 스트로크가 애착, 친밀감, 따뜻함, 소속의 욕구, 사회적 지지, 돌봄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이영호, 2006), 인간의 성장과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Goulding & Goulding, 1979; James & Jongeward, 1977)는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적응이 자아상태와 스트로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TA의 성격구조 및 기능의 이해와 관련한 자아상태 모델과 친밀감·돌봄과 배려·소속의 욕구·접촉·정서적 지지를 증대시키는데 유용한 대인간 교류방식인 스트로크(김규수, 류태보, 2003; 우재현, 2006; 김종호, 2007) 분석을 통해 학교적응을 파악하게 된다면, 이 시기 청소년의 긍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유지하고 조성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성인기의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적응이란 개인이 학교환경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며, 구성원 간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및 수업과 학업성취에 적극적이며, 학교 규범과 질서를 잘 준수함으로써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정도이다(백혜정, 2007; 백경숙, 권용신, 2004; 양순미, 유영주, 2003; 이수현, 최해림, 2007; 이정윤, 이경아, 2004; 최혜숙, 이현림, 2003; Dubois et al., 1994;

Kurdek et al., 1995; Ladd, Kochenderfer & Coleman). 학교적응이 높은 청소년들은 학교에 대한 태도나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원만하여 대체로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바람직한 행동특성을 보인다. 반면 학교적응이 낮은 경우 학교생활 흥미나 학습동기가 미약하여 학교의 제반 규칙이나 활동 등을 힘들어 하고 교사의 지도에 공격적인 대항, 탈선, 무력감 등을 보이거나, 심지어 정신장애 유발과 중도탈락을 하는 등 심각한 부적응을 보인다(이수현, 최해립, 2007; 임성운, 2005).

지금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 적응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내적 요인(구본용, 2007), 환경적 요인(김여진, 2006; 오익수, 2006; 이은영, 2003; 이진숙, 정혜정, 2004)을 다룬 연구들이 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보호요인 강화를 통한 예방심리학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Catalano, Berglund, Ryan, Lonczak, & Hawkins, 2002). 특히 자아탄력성(Block & Kermen, 1996; 이수현, 최해립, 2007), 자아통제(백혜정, 2007)와 사회적 지지(신혜정, 서영석, 2006)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관련 변인과 애착, 승인, 인정, 칭찬, 지지, 배려 등의 인정자극과 관련한 변인이 학교적응을 잘 예측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학교적응 예측변인들을 함께 고찰한 연구들이 매우 드문 실정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심리내적인 자아상태 변인 및 대인간 존재방식인 스트로크 변인과 관련하여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자아상태(ego state)는 일관된 유형의 감정 및 경험의 패턴이며 동시에 이러한 것들과 직접

적으로 관련되는 일관된 행동패턴으로, 모든 인간은 자신의 내부에 크게 아버지 자아(P), 어른자아(A), 어린이 자아(C)의 세 구성요소를 지닌다(Berne, 1961). 이는 Freud가 말하는 초자아, 자아, 원초아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의 인물, 때, 장소, 결단, 감정을 포함한 과거에 기록된 사건자료를 재생시킴으로써 재현되어 가는 심리적인 실체들이다(James & Jongeward, 1977). 그러나 이들 외에도 별도의 잠재적 자아상태는 수없이 많으며, 이 수많은 잠재적 자아상태는 크게 비판적 부모자아(CP), 양육적 부모자아(NP), 어른자아(A), 자유스런 어린이자아(FC), 순응하는 어린이자아(AC)의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CP는 이상을 추구하고 양심적이며 책임감이 강하며, NP는 타인수용과 배려, 동정과 애정, 친절을 행하며, A는 이성적, 합리적, 생산적, 적응적이며, FC는 천진난만하고 자기표현을 잘하며, 자발적, 창조적, 개방적이며, AC는 자신의 참된 감정을 억제하고 쉽게 타협하며, 우울, 불만, 원망, 죄책감, 반항, 자기비하 등의 특성이 있다. 또한 자아상태가 지닌 심리적 에너지의 양은 이고그램(egogram) 그래프로 표시되며(Dusay, 1977; Dusay & Dusay, 1984), 이 이고그램의 양상은 나이, 발달단계, 생활상황이나 질병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많은 이고그램들이 어떤 삶의 방식이나 어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통적 타입이 나타나기에 한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스기다 미네야스, 1992; 우재현, 2006; 허철수, 2005). 각 자아상태는 심리적 에너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긍정적·부정적인 면의 기능을 하며, 그 중 특정 자아상태의 에너지가 강하여 한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면 그 자아상태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성격적 경향을 보인다(박민경,

2007; 이영호, 2006). 특히 각 자아상태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A가 건강하고 주도적이지 못한 경우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과 부적응이 초래된다. 또한 AC가 현저하게 높아 감정 표현을 쉽게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거나, 현저하게 낮아 지나친 자기주장과 고집을 부리는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증상을 호소하거나 분노, 우울증, 자살 등 평소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 주위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권효진, 2006; 스키다 미네야스, 1992). 그러나 성격의 구성요소인 다섯 가지 자아상태의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할 때 부정적인 면은 극복되거나 보완될 수 있고, 특정 자아상태에 에너지를 더욱 부여할 때 그 자아상태는 힘을 가지게 되고 전체 자아상태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이영호, 2006). 이에 부적응하는 개인의 자아상태의 심리적 편재에 대해 자각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심리적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하는 방식을 조력해주는 일이 중요하다(김종호, 2006). 따라서 각 자아상태 변인들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된다면 자율성과 자타긍정의 생활 자세를 견지하는 태도가 형성되기에(이지명, 김인규, 2007)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적응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 질 것이다.

자아상태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비행이나 가출 등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일수록 NP와 FC가 지나치게 높고 A, AC와 CP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배려와 돌봄의 특성 및 호기심과 표현력이 풍부한 면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통합조정능력, 자율성, 자존감, 긍정적인 비판적 사고와 책임감 등이 저하되어 무계획적, 충동적, 완고함, 사회에 순응하지 못하고 선악 판단능력이 미발달된 특성이 두드러져

반사회적인 부적응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현주, 1997; 박민경, 2007; 배영미, 이형실, 2002). 이와는 달리 가족 건강성(박민경, 2007), 긍정적 의사소통과 양육태도(양민철, 2005; 유성희, 2002), 자아정체감(박상예, 2000), 긍정적 생활자세(권효진, 2006; 김용애, 2002)와 인간관계만족도(김용애, 2002)가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A에서 모든 변인들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다음으로 NP, FC, CP도 전반적으로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C는 이들 변인들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신증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A의 구조에 잘못이 있으며, AC가 현저히 높아 과잉적응 성향을 보였으며, CP와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재현, 1993). 이와 같이 자아상태는 청소년들이나 정신질환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의 원만한 적응이 특정 자아상태와 상호간 스트로크 교환으로 이루어지기에(우재현, 1993; 이영호, 2006) 스트로크 변인에 대한 규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스트로크(stroke)는 동기유발과 깊은 의미를 가지는 생물학적 기본 욕구로서 개인 간의 존재인지의 한 단위이며 접촉과 칭찬의 말을 포함하고 있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다(Berne, 1964). 즉 스트로크는 인간의 생명을 최소한으로 유지시키는 것에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일체감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이해와 평가, 적합한 지지와 승인, 마음을 주고받는 사랑의 행위 등을 포괄한다. 무엇보다 인간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충분한 스트로크 교환이 이루어질 때 삶의 의미 찾기(Thomas, 1978) 및 건전한 정서와 지성을 갖추게 되기에(우재현, 1995), 일상생활에 있어서 스트로크의 획득은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작용한다(Baumeister & Leary, 1995). 어린 시절에 기본적으로 받은 스트로크들은 성장하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성숙할수록 신체적인 것에서 상징적인 것으로 대치되어 가며, 크게 긍정적·부정적·무 스트로크로 나누어진다. 상호간 사랑, 돌봄, 사회적 지지 등의 긍정적 스트로크를 상호 교환하게 되면, 행복감이 높아지고 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칭찬이나 승인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등 긍정적인 생활 자세를 형성하게 되기에 건강한 심리적 발달과 적응이 가능하다(우재현, 2006; 전영철, 2001). 이와 달리 긍정적 스트로크가 부족하면 스트로크의 부족 자체가 심리적인 죽음과 같기에(Harris, 1969), 심리적으로 불건강한 기제인 이면 교류인 게임 즉 비난, 비판, 불평, 벌, 꾸중 등의 부정적 스트로크를 받게 되어 폭력, 흡연, 음주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적응 행동이 유발된다(우재현, 2006; 전영철, 2001). 스트로크는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므로 비록 부정적 스트로크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존재 자체는 인정해 주기에 고립, 회피 등의 무 스트로크(NO-stroke)보다는 훨씬 낫다(김규수, 류태보, 2003). 그러나 부정적 스트로크나 무 스트로크의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의 부정적인 생활 자세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며, 심지어 성격장애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의 후반기에도 부정적 스트로크를 추구하게 되어(임현정, 2005; Hansen, Stevie, & Warner, 1977; Stewart & Joines, 1987), 부정적 생활자세가 전 생애를 지배하게 된다.

스트로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재가불자들은 A와 NP가 상호 긍정적 스트로크와 높은 유의미한 상관관을 보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FC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지

명, 김인규, 2007), 현역지원병들은 상호 긍정적 스트로크 뿐 만 아니라 부정적 스트로크 교환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종호, 2007). Birnbaum(1987)은 연극성 성격장애자들의 자아개념에 스트로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스트로크가 애착, 친밀감, 따뜻함, 소속의 욕구, 사회적 지지, 돌봄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이영호, 2006),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Goulding & Goulding, 1979; James & Jongeward, 1977)는 연구결과들에 근거할 때 초기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학교적응이 자아상태와 스트로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자아상태나 스트로크 변인들 각각의 평균이나 상관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 두 변인들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학교라는 환경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연구들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TA을 바탕으로 하여 자아상태와 스트로크 변인을 함께 설정해 학교적응을 탐색한다면 초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주는데 있어 큰 의의를 부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이론에 기초하여 초기 청소년의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와 학교적응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고찰하고자 하며,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아상태 변화와 스트로크 증진을 조력해주는 TA 상담 중재프로그램 구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토대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초기 청소년의 자아상태, 스트로크와 학교적응 변수 간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초기 청소년의 자아상태, 스트로크

와 학교적응 각 하위변인들의 평균은 어떠한가? 셋째, 학교적응 하위변인들인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학업 및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 학교규범 준수에 유의미한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 하위변인들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410명이었다. 표본 추출을 위해 전라북도의 3개시에 소재하는 6개 중학교의 1, 2, 3학년(18개 학급)을 편의 표집하고 해당 학급의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성별의 경우 남학생 200명(48.8%), 여학생 210명(51.2%)이었으며, 학년의 경우 1학년 134명(33%), 2학년 137명(33%), 3학년 139명(34%)이었다.

연구도구

자아상태 척도

개인성격의 구조들로서 행위 유형에 상응하여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감정과 경험의 형태인 자아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Dusay (1977)가 개발한 이고그램을 한국교류분석협회의 우재현(1993)에 의해 표준화한 청소년용 ECL(Egogram Check List)총 50문항을 활용하였다. 다섯 가지 하위요인별 관련문항은 CP(비판적 부모자아)는 ‘무엇이든 단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함’, ‘다른 사람이 잘못된 짓을 했을 때 좀처럼 용서하지 못함’ 등이, NP(양육적 부모자아)는 ‘다른 사람이 길을 물으면 친절히

가르쳐 줌’, ‘친구나 후배에게 칭찬을 잘 하는 편임’ 등이, A(어른자아)는 ‘독서를 좋아하고 지식으로 활용함’, ‘일이나 공부가 잘 되지 않아도 화를 내기보다 침착하게 대처함’ 등이, FC(자유스런 어린이 자아)는 ‘화려한 것을 좋아함’,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표현함’ 등이, AC(순응하는 어린이 자아)는 ‘남의 표정을 보고 행동하는 버릇이 있음’, ‘속으로는 불만이지만 겉으로는 만족한 것처럼 행동함’ 등이 포함 돼 있다. 이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범위는 각 하위척도 별 최저 10점에서 최대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에너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Cronbach α)는 자아상태 전체 .88, 하위척도별로 CP .71, NP .83, A .80, FC .80, AC .82 이었다.

스트로크 척도

나와 타인을 기준으로 긍정적 스트로크와 부정적 스트로크를 주고받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류분석협회에서 표준화한 스트로크 검사지로 김종호(2006)가 제시한 총 25문항을 활용하였다. 다섯 가지 하위요인별 관련문항은 I→U(내가 타인에게 주는 긍정적 스트로크)는 ‘학교나 가정에서 남의 수고에 대해 쉽게 위로하고 감사할 수 있음’, ‘학교에 오고 갈 때 상대방보다 먼저 인사를 하는 편임’ 등이, I→U-(내가 타인에게 주는 부정적 스트로크)는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금방 비판하는 편임’,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주 짜증을 내는 편임’ 등이, +I←U(타인이 나에게 주는 긍정적 스트로크)는 ‘매우 곤란한 문제에 당면했을 때 바로 의논할 만한 사람이 있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맙다든지 감사하

다는 말을 많이 들음' 등이, $I \leftarrow U$ (타인이 나에게 주는 부정적 스트로크)는 '지난 1년 동안 나의 책임이 아닌 일로 인해서 비난받았다고 느낀 일이 많음', '학교나 가정에서 목표미달이나 실수에 대해서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는 일이 많음' 등이, NO 스트로크는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서 아는 사람을 피하고 싶음', '휴일 날 하루 종일 혼자 지내도 고통스럽지 않고 가끔 친구가 찾아오면 부담을 느낌' 등이 포함 돼있다. 이 척도는 Likert식의 5점 척도(1='매우부정'에서 5='매우 긍정')로 평정하며, 점수범위는 각 하위척도별 최저 5점에서 최대 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스트로크 교환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Cronbach α)는 스트로크 전체 .74, 하위척도별 $I \rightarrow U + .58$, $I \rightarrow U - .68$, $+I \leftarrow U .71$, $-I \leftarrow U .75$, NO 스트로크 .65 이었다.

학교적응 척도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적응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현선(1998)이 개발한 학교적응 유연성 검사 총 22문항을 시대에 맞추어 중학생들이 응답하기에 적합하도록 표현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범위는 각 하위척도별 최저 6점에서 최대 3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Cronbach α)는 학교적응 전체 .83, 하위척도별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80, 학업 및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 .67, 학교규범 준수 .75 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자기 보고형 지필식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통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 및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보조 의사를 밝힌 해당학교의 학급 담임교사들에게 검사실시와 관련된 교육을 연구자가 직접 설명하였으며, 해당학급 교사들은 자율 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자가 기록하게 하였다. 응답자의 응답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개별 봉합봉투를 이용하여 질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520부 중 483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자료 68부를 제외한 나머지 415부에 대한 극단치 검색결과 극단치가 5부가 나타나 이를 제외한 410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활용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의 자아상태, 스트로크, 학교생활적응 변인에 대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 단순상관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과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와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학교적응의 각 하위요인을 기준변인으로 하고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를 예언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측정변수 간 상관과 기술 통계치

초기 청소년의 자아상태, 스트로크, 학교적응 측정변수들 간 상관계수와 기술 통계치를 산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초기 청소년의 자아상태, 스트로크, 학교적응 하위변인들 간에 대체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아상태 하위변인

중 CP는 NO 스트로크를 제외한 나머지 스트로크 하위변인들과 학업 및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NP는 상호 긍정적 스트로크 교환 및 학교적응 모든 하위변인들 간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상호 부정적 스트로크 교환 및 NO 스트로크와는 유의하지 않았다. A는 상호 긍정적 스트로크 교환, 내가 타인에게 주는 부정적 스트로크, 학교적응 모든 하위변인들 간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타인이 나에게 주는 부정적 스트로크 및 NO 스트로크와는 유의하지

표 1. 측정변수 간 상관과 기술 통계치 (N =410)

변인	자아상태					스트로크					학교적응		
	CP	NP	A	FC	AC	I→U+	I→U-	+I←U	-I←U	NO 스트로크	학교 생활에 대한 흥미	학업 및 학업 성적에 대한 태도	학교 규범 준수
CP	-												
NP	.19***	-											
A	.36***	.55***	-										
FC	.13**	.35***	.33***	-									
AC	.35***	.10*	.16**	.04	-								
I→U+	.13**	.34***	.32***	.25***	.05	-							
I→U-	.27***	-.01	.14**	.29***	.11*	.28***	-						
+I←U	.14**	.39***	.44***	.43***	-.01	.50***	.12*	-					
-I←U	.18***	-.01	.02	.01	.34v	.01	.27***	-.10*	-				
NO 스트로크	.08	-.10	-.06	-.17**	.18***	-.07	.22***	-.20***	.36***	-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09	.33***	.32***	.15**	-.04	.33***	-.11*	.41***	-.22***	-.24***	-		
학업 및 학업 성적에 대한 태도	.28***	.26***	.45***	.15**	.01	.32***	.06	.39***	-.09	-.12*	.46***	-	
학교규범 준수	.07	.17***	.21***	-.05	-.02	.30***	-.22***	.10*	-.20***	-.18***	.32***	.26***	-
M	28.48	30.80	30.30	32.66	29.19	15.51	13.01	15.71	12.95	11.72	19.68	15.28	28.82
SD	5.09	6.16	6.15	6.51	6.56	3.21	3.55	3.54	3.87	3.71	4.18	3.42	4.28

*p <.05. **p <.01. ***p <.001.

않았다. FC는 상호 긍정적 스트로크 교환, 내가 타인에게 주는 부정적 스트로크, 학교 생활에 대한 흥미 및 학업 및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 간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NO 스트로크와는 부적 상관을, 타인이 나에게 주는 부정적 스트로크 및 학교규범준수와는 유의하지 않았다. AC는 상호 부정적 스트로크 교환 및 NO 스트로크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상호 긍정적 스트로크 교환 및 학교적응 모든 하위변인들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스트로크 하위변인 중 상호 긍정적 스트로크 교환은 학교적응 하위변인들과 정적상관을, 상호 부정적 스트로크 교환은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및 학교규범준수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학업 및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와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No 스트로크는 학교적응 하위변인들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각 변인들 간의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 첫째, 초기 청소년들의 자아 상태는 FC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NP, A, AC, CP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 이고그램은 ‘완만한 M형’이다. 이를 20세 이상 한국인의 평균(한국교류분석협회, 1995)과 비교한 결과, CP의 경우는

28.48로 한국인의 23.8보다 높았지만, NP의 경우 30.80으로 한국인의 35.3보다 낮았고 A도 30.30으로 한국인의 31.5보다 낮았다. 반면 FC의 경우 32.66으로 한국인의 27.9보다 높았고 AC도 29.19로 한국인의 26.8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초기 청소년들의 스트로크 수준은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스트로크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다음으로 내가 타인에게 주는 긍정적 스트로크, 내가 타인에게 주는 부정적 스트로크, 타인이 나에게 주는 부정적 스트로크, NO 스트로크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기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수준은 학교규범준수를 가장 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학업 및 학업성적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와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Durbin-Watson 값이 1.812로 잔차의 독립성이 확인되었고, 공차가 1에 근접하고 VIF<10 이므로 중다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다. 이에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

표 2.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에 대한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B	SE	β	t	R ²	F(6,397)
+I←U	.18	.04	.21	3.95***	.280	25.774***
I→U+	.18	.05	.19	3.71***		
I→U-	-.14	.04	-.17	-3.66***		
-I←U	-.12	.03	-.16	-3.64***		
A	.15	.05	.15	2.83**		
NP	.09	.05	.09	1.72**		

p <.01. *p <.001.

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기준변인으로,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를 예언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실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F=25.774(P<.001)$ 이고 $R^2=.280$ 으로 나타나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요인이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에 있어서 전체 설명력은 28%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의 하위요인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면, 가장 높은 예측을 하는 변인으로는 $+I\leftarrow U(\beta=.21, p<.001)$ 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I\rightarrow U+(\beta=.19, p<.001)$, $I\rightarrow U-(\beta=-.17, p<.001)$, $-I\leftarrow U(\beta=-.16, p<.001)$, $A(\beta=.15, p<.01)$, $NP(\beta=.09, p<.0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가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긍정적 스트로크는 주지만 부정적 스트로크는 주지 않으면서 내가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스트로크를 받지 않을 때와, 어른자와 양육적 아버지가 자아가 활성화 되어 있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가 유발되어 학교적응력이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와 학업 및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

Durbin-Watson 값이 2.037로 잔차의 독립성이 확인되었고, 공차가 1에 근접하고 $VIF<10$ 이므로 중다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다. 이에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업 및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를 기준변인으로,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를 예언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실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F(6,397)=6.913(P<.001)$ 이고 $R^2=.289$ 로 나타나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요인이 학업 및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전체 설명력은 약 29%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의 하위요인들이 학업 및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면, 가장 높은 예측을 하는 변인으로는 $A(\beta=.29, P<.001)$ 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I\leftarrow U(\beta=.21, P<.001)$, $CP(\beta=.16, P<.01)$, $I\rightarrow U+(\beta=.12, P<.05)$, $-I\leftarrow U(\beta=-.11, P<.05)$, $FC(\beta=-.10, P<.0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른자아가 활성화 되어있고, 내가 타

표 3. 학업 및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에 대한 자아상태 및 로크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B	SE	β	t	R^2	F(6,397)
A	.27	.05	.29	5.77***	.289	6.913***
+I←U	.17	.04	.21	3.81***		
CP	.18	.05	.16	3.44**		
I→U+	.11	.04	.12	2.51*		
-I←U	-.08	.03	-.11	-2.50*		
FC	-.09	.04	-.10	-2.03*		

* $p <.05$. ** $p <.01$. *** $p <.001$.

인으로부터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으며 비판적 어버이 자아가 활성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긍정적 스트로크를 주는 반면에 내가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스트로크를 받지 않고 자유스런 어린이 자아가 비활성화 되어 있을수록 학업 및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가 향상되어 학교적응력이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

→U-($\beta=-.21, P<.001$), -I←U($\beta=-.15, P<.01$)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른자아가 활성화 되어 있고, 내가 타인에게 부정적 스트로크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스트로크를 받지 않을수록 학교규범준수를 잘 하여 학교적응력이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와 학교규범준수

Durbin-Watson 값이 1.948로 잔차의 독립성이 확인되었고, 공차가 1에 근접하고 VIF<10이므로 중다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다. 이에 학교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규범준수를 기준변인으로,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를 예언변인으로 한 회귀분석 실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F(3,400)=19.101(P<.001)$ 이고 $R^2=.125$ 로 나타나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요인이 학교규범준수에 있어서 전체 설명력이 약 13%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의 하위요인들이 학교규범준수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의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면, 가장 높은 예측을 하는 변인으로 $A(\beta=.24, P<.001)$ 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I

논 의

본 연구는 교류분석(TA)에 기반을 두고 초기 청소년의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중학교에 재학 중인 410명이 무선 표집되었으며, 연구대상자들에게 자아상태, 스트로크와 학교적응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상관분석과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상태 하위변인 중 CP는 NO 스트로크를 제외한 나머지 스트로크 하위변인들과 학업 및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NP는 상호 긍정적 스트로크 교환 및 학교적응 모든 하위변인들 간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상호 부정적 스트로크 교환 및 NO 스트로크와는 유의하지 않았다. A는 상호 공

표 4. 학교규범준수에 대한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B	SE	β	t	R ²	F(3,400)
A	.19	.04	.24	5.13***		
I→U-	-.14	.03	-.21	-4.30***	.125	19.101***
-I←U	-.09	.03	-.15	-3.15**		

p <.01. *p <.001.

정적 스트로크 교환, 내가 타인에게 주는 부정적 스트로크, 학교적응 모든 하위변인들 간 정적 상관을 보였고 타인이 나에게 주는 부정적 스트로크 및 NO 스트로크와는 유의하지 않았다. FC는 상호 긍정적 스트로크 교환, 내가 타인에게 주는 부정적 스트로크,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및 학업 및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 간 정적 상관을, NO 스트로크와는 부적 상관을, 타인이 나에게 주는 부정적 스트로크 및 학교규범준수와는 유의하지 않았다. AC는 상호 부정적 스트로크 교환 및 NO 스트로크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상호 긍정적 스트로크 교환 및 학교적응 모든 하위변인들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CP가 이상을 추구하고 양심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특성이 있기에 대인관계에 있어 상호간 긍정·부정적 스트로크를 충분히 교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공부 및 성적 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NP는 타인수용과 배려, 동정과 애정이 깊은 특성이 있기에 상호간 긍정적 스트로크를 충분히 교환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기에 상호 부정적 스트로크 교환이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A는 이성적·합리적이며 가장 긍정적인 심리적 에너지를 유지하므로 상호간 긍정적 스트로크를 교환하면서도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고나 지적도 냉엄하게 잘 하여 전체적으로 치우침 없이 학교적응을 잘 해나가는 것으로 사료된다. FC는 자발적·창조적·개방적이고 자기표현을 잘하는 특성이 있기에 상호간 긍정적 교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서슴없이 잘 하며, 흥미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학습활동도 하지만 타인과 교류가 단절되면 힘들어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AC는 우울, 불만, 원망, 죄책감, 반항, 자기비하 등의 심리적 부정

응을 수반하는 특성이 있기에 상호 부정적 스트로크, 즉 이면교류인 심리적 게임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심지어 타인과의 교류를 단절 하는 등 폐쇄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스트로크 하위변인 중 상호 긍정적 스트로크 교환은 학교적응 하위변인과 정적 상관을, 상호 부정적 스트로크 교환은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및 학교규범준수와는 부적 상관을, No 스트로크는 학교적응 하위변인들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상호 간 긍정적 스트로크가 건강한 심리적 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기에 삶의 긍정적 에너지를 부여해 줌으로써 학교적응력을 높여줄 수 있지만, 불건강한 이면교류인 심리적 게임을 반복하는 상호 간 부정적 스트로크 교환은 부정적 에너지의 증가를 가져와 일탈이나 비행 등 학교규범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재가불자들의 경우 A와 NP가 상호 긍정적 스트로크와 높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이지명, 김인규, 2007), 중학생의 경우 NP, FC, A, CP가 긍정적 정서와 정적상관을 NP, FC, A가 인간관계와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AC의 경우 인간관계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용애, 2002)와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트로크가 인간의 생명을 최소한으로 유지시키는 것에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일체감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이해와 평가, 적합한 칭찬과 승인, 마음을 주고받는 사랑의 행위 등을 포괄하며, 이로 인해 상호간 기분이 좋아져 삶의 의미 찾기 및 건전한 정서와 지성을 갖추게 해준다는 주장(우재현, 1995)과 일맥상통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어린 시절에 기본적으로 받은 스

트로크들은 성장하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에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이면교류인 심리적 게임을 중단시키고 상호간 긍정적인 스트로크 교환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교류패턴 분석과 시간구조화에 근거한 TA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청소년기 학교적응이 훨씬 원만하게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각 변인들 간의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 초기 청소년들의 자아상태의 경우 FC가 가장 높고, NP, A, AC, CP 순으로 전체적으로 '완만한 M형'의 이고그램 패턴으로 나타났다. 스트로크 수준은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스트로크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내가 타인에게 주는 긍정적 스트로크, 내가 타인에게 주는 부정적 스트로크, 타인이 나에게 주는 부정적 스트로크, NO 스트로크 순이었으며, 학교적응 수준은 학교규범준수를 가장 잘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학업 및 학업성적 순이었다. 이는 명랑하고 대범하며, 호기심 많고 주위에 쉽게 동화되거나 분위기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은 이 시대의 청소년의 전형적 특성과 상호간 긍정적인 교류방식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생활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질서나 규범들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현역 지원병을 대상으로 NP가 가장 높게 나오고, FC, A, AC, CP 순으로 완만한 M형의 이고그램이 나타난 연구결과(김중호, 2007)와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NP가 가장 높고, A, FC, AC, CP 순으로 언덕형의 이고그램이 나타난 연구결과(우재현, 1995)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에 비해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일수록 비판적 부

모자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양심과 윤리와 책임감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에 타인에 대한 헌신 및 합리적 사고와 행동은 부족한 편이며, 오히려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고 부모에 의존하는 어린이 자아가 활성화 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Dusay(1977)의 자아상태 불변성 가설(constancy hypothesis)에 근거하여 높은 자아를 통제하기 보다는 낮은 자아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학교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에 실제 상담현장에서 FC와 NP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A, AC, CP를 촉진시키는 자기주장훈련이나 감수성 훈련을 구안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의 각 하위변인이 학교적응의 각 하위변인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는지 탐색한 결과,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는 상호간 긍정적 스트로크 교환은 자주 하는 반면에 부정적 스트로크 교환을 하지 않으면서 A와 NP가 활성화 되어 있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학업 및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는 A가 활성화 되어있고 상호간 긍정적 스트로크 교환 및 CP가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는 반면에 내가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스트로크를 받지 않고 FC가 비활성화 되어 있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학교규범준수는 A가 활성화 되어있고 상호간 부정적 스트로크 교환을 하지 않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먼저 초기 청소년들이 타인으로부터 격려, 칭찬, 애정, 사랑 등을 충분히 받아야만 즉, 대인간 교류에 있어서 존재인지에 대한 긍정적 인정욕구가 상호간 충족이 되어 있을수록 학교생활을 매우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심리적 에너지가 강한 건강한 A

자아상태, 즉 합리적·이성적인 사고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현재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임하기에 학업태도와 성적관리 능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민주시민의 자질이 풍부하여 공동체 생활에서 조화롭게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상호 교환하게 되면 행복감이 높아지고 지적 인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칭찬이나 승인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등 긍정적인 생활 자세를 형성하게 되기에 건강한 심리적 발달과 적응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우재현, 2006; 전영철, 2001) 및 부정적 스트로크가 부정적인 생활 자세를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임현정, 2005; Hansen, Stevie, & Warner, 1977; Stewart & Joines, 1987)와 일치한다. 또한 스트로크가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Goulding & Goulding, 1979; James & Jongeward, 1977) 및 A 자아상태가 인간의 긍정성(OKness)을 가장 잘 발휘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가족의 건강한 심리적 환경, 긍정적 생활 자세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도록 조력해주는 가장 건강한 자아임이 예측된 연구결과들(권효진, 2006; 김용애, 2002; 박민경, 2007; 양민철, 2005; 유성희, 2002)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의 적응이 심리적 에너지와 타인지향적인 경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즉, 학교적응이 자아상태 및 스트로크 변인들 중 어른자아(A)와 상호간 긍정적 스트로크 교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특히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다룬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TA에 근거하여 특정 자아 상태와 상호간 스트로크 교환에 의한 학교적응을 밝힌 연구들이 거의 없었기에 그 의의가 크다. 그러므로 학교적응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관련변인들을 독립적으로 다루기보다 자아상태 변화와 스트로크 증진이 함께 이루어지는 TA 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학교 및 상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가 함의하는 이론적·실제적 시사점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자기보고식 질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보고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반응의 신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는 부모나 교사의 관찰 및 면접법 등 질적 연구방법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정지역의 일부 중학생들이 대상이기에 다른 연령 및 사회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나 임상 집단에 일반화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연구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 연구결과를 반복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자아 상태와 스트로크 뿐 만 아니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시키지 않았기에 추후연구는 인생각본, 시간구조화 등 관련 변인 및 사회 환경적 요인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횡단적 자료에 근거하여 수행된 연구로서 표본 자체의 특성이 반영된 것 일 수도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적 방법이나 단기 종단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본 연구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경우 학교적응과 관련된 영역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학업 및 학업성적, 학교규범준수의 세 영역만을 살펴봄으로써 일반화의 한계가 있기에 추

후연구에서는 학교적응과 상관이 있다고 밝혀진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행사 뿐 만 아니라 학교풍토 등의 다양한 영역들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분용 (2007).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완벽주의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8(2), 707-718.
- 권효진 (2006). 부모양육태도와 기독교청소년의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와의 관계. *한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수, 류태보 (2003). *교류분석치료*. 서울: 형설출판사.
- 김여진 (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용애 (2002). 이고그램에 나타난 중학생의 자아상태와 인생태도 및 인간관계만족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호 (2006). 군 및 조직 효능성 향상을 위한 스트로크 프로그램. *한국TA학회/(사)한국교류분석협회 연차대회*, 69-80.
- 김중호 (2007). 현역 지원병의 자아상태와 스트로크에 관한 연구: *교류분석(TA)이론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8(1), 181-197.
- 김현주 (1997). *교류분석훈련이 비행청소년의 자율성과 생활자세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경 (2007). *위기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자아상태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예 (2000). *고등학생의 자아상태와 자아정체감의 관계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현 (2003).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1, 23-52.
- 배영미, 이형실 (2002). *청소년 미혼모와 일반 청소년의 자아상태, 인생태도 및 가족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6), 39-51.
- 백경숙, 권용신 (2004).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6(2), 87-99.
- 백혜정 (2007). *자아통제, 자기신뢰 및 교사에 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57-373.
- 스기다 미네야스 (1992). *교류분석*. 서울: 민지사.
- 신혜정, 서영석 (2006). *청소년의 학교급별(초, 중, 고)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적응 간의 구조모형 분석*. *상담학연구*, 7(1), 117-130.
- 양명숙, 한영숙 (2007). *청소년 전환기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1), 351-367.
- 양민철 (200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상태와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 유영주 (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농촌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9), 121-134.
- 오익수 (2006). 초등학생의 초기기억에 나타난 생활양식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7(2), 633-645.
- 우재현 (1993). 이고그램. 대구: 정암서원
- 우재현 (2005). 심성개발을 위한 교류분석 훈련 프로그램. 대구: 정암서원.
- 우재현 (2006). 임상교류분석(TA)프로그램. 대구: 정암서원.
- 유성희 (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상태 및 생활자세와의 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호 (2006). 교류분석을 적용한 부부친밀감 강화 프로그램. 한국TA학회/(사)한국교류분석협회 연차대회, 30-68.
- 이수현, 최해림 (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참여 형태, 자아탄력성,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21-337.
- 이은영 (2003).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학교적응의 차이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윤, 이경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이지명, 김인규 (2007). 교류분석을 통해서 본 재가불자들의 자아상태와 스트로크에 관한 연구.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연구, 4(1), 19-45.
- 이진숙, 정혜정 (200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47-61.
- 임성윤 (2005). 중학생이 지각한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현정 (2005). 음악활동이 교류분석에 기초한 성인의 자아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철 (2001). TA-stroke 훈련 프로그램이 자아상태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04). 전생애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 최혜숙, 이현림 (2003).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01-216.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y. Bulletin*, 117(3), 497-529.
- Berne, E. (1961). *Transactional analysis in psychotherapy*. New York: Grove Press.
- Berne, E. (1964). *Games people play*. New York: Grove Press.
- Birnbaum, J. (1987). A Replacement therapy for the 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17, 24-28.
- Block, J. & Ker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Catalano, R. F., Berglund, M. L., Ryan, J. A. M., Lonczak, H. S., & Hawkins, J. D. (2002).

-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findings on evaluations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programs.* Retrieved August 22, 2002, from <http://aspe.hhs.gov/hsp/PositiveYouthDev99/>.
- Dubois, D., Eitel, S. K., & Felner, R. D. (1994). Effect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05-414.
- Dusay, J. M. (1977). *Egograms*.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 Dusay, J. M., & Dusay, K. M. (1984). *Transactional analysis*, In R. J. Corsini(ED.). Itasca, Current psychotherapies(3rd ed.). Itasca, IL: F. E. Peacock.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oulding, M., & Goulding, R. (1979). *Changing lives through redecision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Publishers.
- Hansen, J. C., Steve, R. R., & Warner, R. W., Jr. (1997). *Counseling: Theory and process(2nd ed.)*, Boston: Allyn & Bacon.
- Harris, T. A. (1969). *I'm OK-You're OK*. New York: Avon Books.
- Jacques, M. (2005). Using Transactional Analysis to Increase Organizational Performance,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35(4), 355-364.
- James, M., & Jongeward, D. (1977). *Born to Win: Transactional Analysis with Gestalt Experiments*. Reading: Addison-Wesley.
- Kurdek, L. A., Fine, M. A., & Sinclair, R. J. (1995). School adjustment in six graders: Parenting transitions, family climate, and peer norm effects. *Child Development*, 66, 430-445.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opez, S. J., & McKnight, C. G. (2002). *Moving in a positive direction: Toward increasing the utilit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5, Article 17, Retrieved September 4, 2002, from <http://journals.apa.org/prevention/volume/pre0050019c.html>.
- Stewart, I., & Joines, V. (1987). *TA Today: a New Introduction to Transactional Analysis*. Nottingham & Chapel: Life space.
- Thomas, R. W. (1978). *A group comparison of teaching transactional analysis relative to internalization skills*. E D. D, Dissertation, Idaho state University.

원고접수일 : 2008. 2. 20

수정원고접수일 : 2008. 4. 6

게재결정일 : 2008. 5. 9

The Relationships Between Ego-State, Stroke and Schoo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Based on the Theory of Transactional Analysis

Mi-rye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s between ego-state, stroke and schoo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based on the theory of transactional analysis. The KTAA Egogram Check List, the Stroke Check List, and School Adjustment Scale were administered to 200 male and 210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 total of 410 students) from Cheonbuk provinc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M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e variables ego-state, stroke and school adjustmen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ly, an average score of the ego-state showed a high score in FC, stroke showed high scores in terms of positive stroke (receiving from others) and school adjustment showed high scores in terms of school rules observance. Thirdly, positive stroke (receiving from other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school interest levels and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learning and school regulations.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early adolescence, ego-state, stroke, school adjustment